

# 자연보존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제 6 호 1974. 12.

韓國自然保存協會 發行



京畿道 高陽郡의 미선나무

〈表紙說明〉

미선나무(물푸레나무科)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特産 屬의 하나로서 忠淸北道 鎭川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나 管理不足으로 鎭川郡 초평面的 것은 滅種되고 槐山郡에 3個所만이 남게되어 이를 미선나무 自生地 天然記念物로 指定 保護하여 왔다. 그러나 最近(1973年 4月, 9月)에 京畿道 高陽郡 신도面 효자리에서 梨花女大의 李永魯, 吳昫子博士와 슈나이더氏에 의하여 새로운 미선나무 群落이 발견되어 學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미선나무 自生地에는 보통 분홍色(帶淡桃色)과 白色의 아름다운 두가지 品種이 같이 자라고 있는데 산록의 돌무더기틈에서 자라므로 바위틈에 끼여 있는듯이 보인다. 京畿道 地方에서도 越冬이 잘 되지만 陽地바른 산록을 보다 좋아하는 듯하다.

落葉潤葉灌木인 이 나무는 橢圓形 또는 卵形의 잎이 마주 나며, 잎의 가장자리에는 鋸齒가 없고 끝은 뾰족하다. 三月에 잎이 나기전 白色 또는 帶淡桃色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꽃이 핀다. 꽃부리는 깊이 갈라지고 열매는 부채꼴로 잎과 같이 綠色 또는 紫朱色으로 되고 가을철에 黃褐色으로 익는다. 둥근 부채꼴의 열매로 인하여 美扇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現在 自生地로는 天然記念物 第147號인 槐山의 미선나무 自生地(忠北 槐山郡 장연면 송덕리 산 221번지)와 第221號인 栗池里의 미선나무 自生地(槐山郡 칠성면 栗池里), 第220號 추점리의 미선나무 自生地(槐山郡 장연면 추점리)등 3곳과 京畿道에서 새로이 발견된 한곳이 있을 뿐이다.

송덕리의 것은 냇가 옆으로 달리는 大路 옆 언덕 밑에 있으며 돌구덩이 앞에 쌓아는 돌처럼 雜石이 있고 군데 군데 큰 바위가 있는 바위틈이나 돌틈에서 자란다. 주위를 鐵造網으로 둘러막아 保護하고 있으나 오히려 울타리 밖에 그 個體數가 많은 것은 일반 사람들이 울타리 안에서 자라는

것만을 채취하여 간 닻이라고 생각된다.

栗池里의 경우는 部落에서 약간 떨어진 野山의 중턱에 있으며 커다란 바위와 굵은 돌들이 쌓여 있는 돌무더기 틈에서 자라고 있는데 주위의 植生은 完全히 破壞되어 灌木만이 자라고 있는 곳이며 특이한 種類로서는 나도국수나무, 백선, 짝짜래나무, 길마가지나무 및 애기우산나물등이 있다.

또한 추점리의 경우도 산록의 논 밭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급한 비탈의 흙이 모조리 흘러내리고 돌만이 남아 있는 곳에 자라고 있으며 같이 자라는 植生으로는 나도국수나무와 더위지기, 속새가 신기하게 보일뿐 기타는 다른 곳에서도 흔히 자라는 식물들이다.



京畿道 高陽郡에서 새로운 미선나무 自生地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슈나이더氏와 미선나무 群落

京畿道에서 새로이 발견된 미선나무의 植生도 上記한 미선나무 產地와 비슷한 곳에 자라고 있으나 발견자들은 일반인들의 盲目的인 濫採로 인한 滅種을 憂慮하여 뜻있는 學者外의 一般에게 公開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寫眞: 京畿道 高陽郡에서 새로이 發見된 미선나무, 1973년 9월 梨花大 李永魯博士 撮影, 提供〉

〈編輯者〉

<論 說>

# 식량 위기와 산림자원

李 德 鳳

요사이 각 신문지상에 세계적인 식량 위기와 함께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도 심상치 않음을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1년간 식량 소요량을 대략 7천만섬으로 본다면 쌀이 3천만섬, 보리 1천5백만섬, 밀 1천5백만섬, 콩, 옥수수과 기타 잡곡 1천만섬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쌀은 금년의 수확량이 풍작으로 3천만섬을 넘을 것이라고 하니 쌀에 한해서는 외미를 수입하지 않아도 될뿐 아니라 12月 4日에 농수산부가 쌀은 7분도(分搗)이상의 도정(搗精)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바, 이로 인하여 연간 50여만섬의 쌀이 절약된다고 하니 만시지탄이 없지 않으나 전 국민의 협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한거름 더 나아가서는 머지 않은 장래에 현미식을 장려하게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그 까닭은 현미식이 실컷 된다면 외미 수입을 막을 수 있을뿐 아니라 보전상으로 보아 크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식물은 내부 방위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 조직에 주력한다고나 할가 현미에서 백미로 쪄올 때 떨어져나가는 쌀겨와 씨눈(胚芽)에는 단백질과 회분이 많고 비타민 B는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인간은 미련하게도 인체에 유익한 이 성분들을 내어버리고 각기병과 암을 유발하는 백미만을 먹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白米는 한자식으로 쓰면 米白이 되는데, 粕은 찌끼박자이니 白米를 먹는것은 곧 좋은 것은 다 버리고 찌끼만 먹는 셈이라고 하였다. 다음 표 2를 보면 단백질, 지방, 회분(무기 양분이 들어 있다), 비타민 B등에 있어서 현미가 백미보다 분량이 많다. 다만 현미는 백미에 비하여 탄수화물이 5%가량 적고 소화율이 좀 낮으나 그 대신 섬유가 많기때문에 장에 자극을 주어 배변을 돕는데 유리하다고 보겠다. 또 표 3에서 보면 배아와 쌀겨가 단백질, 지방, 회분등이 현미보다도 %가 많고 비타민 B는 월등하게 풍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때 어떤 학자의 말이 긍정된다.

<표 1> 도정도, 정백율 및 도감과의 관계  
(搗精度, 精百率及 搗減과의 關係)

도 정 도	정 백 율 (중 량 %)	도 감(%)
현 미	—	—
5 분 도 미	96	4
7 분 도 미	94	6
백 미	92	8

현미식의 구수한 맛에 한번 맛드리면 백미식은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다. 다만 밥짓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솥뚜껑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현미식을 계속하면 백미식으로 인하여 유발되었던 병인이 제거되어 건강이 증진되는 것은 현미 상식자 누구나가 경험하는 바이다.

쌀은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증산과 현미식 장려로 자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리, 밀등 잡곡의 수입량이 2천만섬으로 그 값이 8억불을 넘는다고 하니 한심스럽다. 그나마 양곡을 사오던 미국에서 팔기를 꺼리니 돈 가지고 사오기도 어렵게 되었다.

이 식량 위기를 극복할 방도는 무엇인가? 정부에서는 종자개발, 농사법개선, 간석지 및 구릉지대 개발, 소비절약, 농민의 생산의욕 촉진방안등을 강구하고 있으나 인구 증식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어떤 획기적인 방도가 서지 않고는 식량위기의 심각성은 증대될 것이 예견된다. 그래서 필자는 위의 정부 시책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식량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김백룡씨가 개발한 소위 선식(仙食)이라고 하는 일종의 발효식품인데 원료는 도토리, 솔잎, 칩뿌리, 표고버섯, 들깨, 백봉령, 비자, 울무, 감초, 포도등 10여종이다. 이 원료들을 섞어서 땅 속에 묻어 발효시킨것이다. 발효 기간은 길수록 좋지만 3년이상은 묻어 두어야 된다고한다. 이 원료들은 실상은 옛날부터 흉년에 구황식물(救荒植物)로 널리 이용하던 것들이다.

선식을 상식하면 체질이 개선되어 모든 병인이

<표 2> 도 정 정 도 와 양 분

도	정	도	수	단	지	탄	섬	회	비	소
			분	백	방	수	유	분	타	화
				질		화	회		민	율
						물	분		B <sub>1</sub>	%
									/100g	
현		미	14.5	8.2	2.6	71.6	1.0	1.2	380	89.6
5	분	도	15.8	8.1	1.2	76.9	0.3	0.9	—	94.5
7	분	도	14.1	7.0	0.9	77.0	0.5	0.7	90	95.8
백		미	14.0	6.5	0.9	76.6	0.3	0.7	10	97.1

<표 3> 부 산 물 의 화 학 적 성 분

부	산	물	수	단	지	탄	섬	회	비
			분	백	방	수	유	분	타
				질		화	소		민
						물	분		B
									r
									/100g
백	강		10.15	13.13	15.58	46.59	6.90	7.65	—
배	아		10.41	20.76	20.66	27.82	10.11	10.24	7,300
쌀	겨		12.09	17.46	21.48	13.62	9.11	9.87	2,000
채	미		14.24	8.51	3.21	78.42	0.77	1.70	365

제거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몸이 가벼워져서 산을 타도 숨이 차지 않고 뚱뚱하든 사람은 날씬해진다고 한다. 하루 한끼만이라도 선식을 한다면 그만큼 식량은 절약될 것이요, 점차 습관을 붙여 두끼 내지 세끼를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양곡은 외국에 수출도 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공해로 인한 유해물질이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 물고기류를 오염시키고, 독한 농약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들을 원료로한 가공식품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란 거의 없다고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이에 공포를 느낀 서구인 중에는 비료나 농약을 주지 않고 재배한 농작물로 만든 음식을 자연식이라고 하며 이 자연식을 찾는 사람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선식이야 말로 참된 자연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조림 또는 가루로 만들어 선전을 널리한다면 외화획득에도 한몫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된다면 산림자원은 지금까지의 용도 이외에 그 일부가 식량 자원으로 전환되어 획기적인 공헌을 하게 되리라고 본다.

선식을 보급시키자면 몇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1. 맛이 시금털털하고 빛같이 곱지 못하므로 개량을 요한다.
2. 현재로는 분양가격이 비싸서 종류이상의 재력이 없이는 곤란하다. 그러나 김씨는 원균을 개발하였다하니 이것을 구해다가 자작 만들면 될 것이다.
3. 새마을 몇 곳을 선정하여 선식을 보급시켜서 효과가 나타나면 그 보급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4. 선식이 보급될 것에 대비하여 적당한 국유림을 택하여 그 원료 식물들을 보호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협회 회장>

(8페이지에서 계속)

에는 아직도 江原監營門樓가 남아있고 東南方으로 약 12km地點에 道立公園으로 指定된 雉岳山이 있다. 雉岳山은 外亂이 있을때마다 官民合心으로 잘 막아낸 鶴鷓山城을 비롯하여 龜龍寺, 上院寺, 國亨寺, 石徑寺등 이름난 절이 있으며 原城 神林面의 樹林地와 城隍林은 天然紀念物(92·93號)로 指定되어 保護되고 있다. 또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에는 國寶 59號로 지정된 智先國師去妙塔碑가 있다. 이

밖에 유서깊은 寺刹로는 洪川의 壽陀寺를 꼽을수 있는데 여기서 發見된 月印千江之曲은 國文學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되고있다.

이렇듯 江原道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景觀資源이 있고 「公害없는 道」, 「三千萬의 休養地」를 標榜하고 있어 75년에 嶺東高速道路개통과 더불어 全國에서 觀光客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밀려들것이다.

<韓國自然保存協會 江原道支部長>

<資 料>

## 우리나라의 山林

李 承 潤



國土面積 985萬 ha의 67%에 該當하는 우리나라 山林은 林木蓄積에 있어서 ha當 平均 11m<sup>3</sup>에 不過한 貧弱한 資源의 狀態에 놓여있다.

이와같이 蓄積이 적을뿐만 아니라 生産力의 基盤이 되는 地力이 全般的으로 衰退되어 있으며 特히 經濟的 立地條件이 좋은 野山地帶가 더욱 顯著하게 低下하여 山林의 林業的 利用上 큰 阻害要因이 되고있다. 또한 山林이 發揮할 수 있는 國土保全 水源涵養, 保健休養等 公益的인 機能에 있어서도 退化된 地力으로 因하여 山林으로서 期待할 수 있는 높은 水準의 機能確保가 매우 困難한 現實에 놓여있다. 그 結果 山地로부터의 土砂 流出을 充分히 抑制할수 없게 되어 河床이 높아지고 그로 因한 洪水의 被害도 아울러 招來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水平的으로 보아 溫帶에 屬하며 年平均 氣溫이 11~15°C 程度로서 比較的 溫和하다고 볼 수 있다. 年間 降雨量에 있어서도 100~150 mm에 達하고 있으므로 世界的으로 보아도 林木이 生育하는데 適合한 氣候 條件下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上述한 모든 條件을 綜合적으로 檢討하여 볼때 우리나라 山林은 元來는 優良한 山林이 形成될 수 있는 地域이다. 다시 말해서 林木이 잘 生育할 수 있는 條件下에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地方에 가보면 옛날부터 保存되어 오고있는 優良한 老齡林들은 이를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山林은 政府가 企圖하는 林業政策의 基本方向을 強力히 밀고 나아갈 수 있는 與件이 附與되고 國民大衆이 眞正으로 이에 呼應하여 精神과 努力의 總和인 精力을 注入한다면 옛날 漢詩에도 「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이라고 感嘆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의 錦繡江山을 우리代에서

다시 出現케 할 수 있음을 確信해서 마지않는 바이다. 材木의 生産期間의 超長期性等 技術的인 特質에 비추어 山林政策의 樹立은 어디까지나 長期的인 觀點下에서 定하는 未來像의 現實이 主된 內容이어야 함은 勿論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여기에 1973年을 基點으로 하여 1982年에 終結을 보게 될 第1次 治山綠化 10年 計劃을 要約해서 其 要旨를 紹介하고, 이대로 實踐되면 果然 위에서 말한 山林의 本來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는 基盤이 造成될 수 있고 後半期 第2次 治山綠化 10年 計劃의 終結年度에가서 우리들이 꿈꾸는 韓國 山林의 未來像이 出現될 것인가에 對하여 다 같이 吟味하여 이에 對한 부른 希望을 안고, 實踐하는 過程에서 힘차게 또한 精熟로서 도와주고 밀어 줄것을 全體 國民에게 呼訴하는 바이다.

이번 前後 二段階로 나누어진 20年 長期 治山綠化 計劃은 오로지 國民의 福利增進을 爲하고 아울러 國家의 富強을 實現시켜보자는 것이다.

第一次 治山綠化 10年 計劃은 政府 經濟開發計劃, 國土綜合 開發計劃, 그리고 새마을 計劃 등과 有機的인 連結로서 繼續 發展을 시키면서 補完이 거듭될 것이다. 그리고 計劃의 段階는 10年 計劃을 다시 前半 5年 後半 5年으로 또 最初 2年은 準備年度로 잡고 있다. 準備年度에는 于先 質의 改良을 試圖하면서 漸次量的으로 擴大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最初 2年의 準備年度에는 10年 計劃의 基盤 構築을 主幹으로 山地 基本調査, 適地適樹의 判斷, 林野의 一齊登錄, 國民的 造林教育의 實施, 山林 行政體制의 整備, 既成林分의 徹底한 管理, 山林要員의 武裝化에 두고 있다.

第一次 治山綠化 10年 計劃의 造林事業 計劃을 보면 本 計劃의 初年度인 1973年 現在 造林對象 林野 2,637千 ha中 1,084千 ha를 第一次 10年 計劃 期間에 完了하고 나머지 1,637千 ha를 第二次 10年 計劃 期間中에 實施하기로 되어 있으며 有實樹(남) 300千 ha, 速成 特用樹 300千 ha, 農村 燃料林

205千 ha, 長期樹 1,954千 ha로 區分 策定하고 있다.

新規 造林計劃을 上述한 바와 같이 大體로 4個 部分으로 區分 策定한 主要因은 于先面積 比率에 있어서 有實樹는 總 造林面積의 30%를 占有하고 있다는 點과 速成樹는 50%인데 反해 長期樹는 約 20% 程度의 比率로 된것다는데 特徵이 있다.

有實樹 造林의 對象地는 主로 農村村 部落 附近 野山地帶로서 가장 經濟的으로 有利한 地域圈에 屬하고 있으나 가장 地力이 低下되고 各種 産業의 阻害要因이 되고 있다는 點에서 이의 地力을 早速히 回復시키고 國民의 所得增大와 造林의 參與意識을 높이기 爲하여 여기에 力點을 두고 있다. 또 速成林 特히 農村 燃料林造成에 優先을 擇한 理由는 農村燃料 解決 없이 山林綠化는 實際로 不可能하다는 立場과 農村燃料의 林産物을 代替할수 있는 代用燃料는 現在 實情으로 보아 困難하다는 事情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農用材 生産을 爲한 林産資源을 短期間內에 解決하기 爲한 對策으로 또한 林間 裸地의 被覆을 爲하여 衰退한 地力의 回復, 다시 말해서 造林의 基盤造成에 主力을 두고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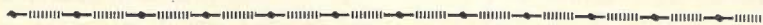
第一次 計劃은 위에서 말한바 대로 어디까지나 國民의 造林 意識의 昂揚과 아울러 短期間內에 收

益性 있는 經濟造林, 林力增進을 爲한 造林에 重點을 두었다. 이와같이 基盤이 造成되면 第二次 10年 計劃에는 長期性 造林에 置重 遂行할것을 明示하고 있다.

造林도 重要하지만 既히 造成되고 있거나 傳來로 保存되어 오는 돌 하나, 雜草 한포기, 나무 한그루, 모래 한줌, 모든것이 나라의 보배로서 國土의 自然景觀을 保護하는데 積極인 態勢를 強化하고 있다.

山林 病虫害 防除 對策에 있어서는 消極的인 防除에서 積極防除策으로 轉換하는 同時에 鳥獸의 保護 增殖에 特別 保護策을 講究하고 있다. 그리고 每年 山林에 莫大한 被害를 주고있는 山火의 防止를 爲한 警報網의 強化, 일없이 山에 들어가서 山林을 해치는 弊習을 是正하기 爲한 山林의 入山 統制, 地力을 衰退시키는 落葉採取 行爲等을 禁止하는 等은 一般 國民이 불매 지나친 行政措置라고 評할지 모르나 山林行政은 現實의 山林狀態에서 未來像이 出現될때 까지 다같이 忍耐와 協調가 懇切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要望하는 同時에 本計劃의 遂行이 停滯된 韓國 山林을 一大 革新하는 國民의 課業임을 널리 理解하여 주기 바라는 마음 切實하다.

〈林業試驗場長〉



(16페이지에서 계속)

면적이 100만ha이 넘으며 이것은 사자나 얼룩말등의 動物들을 保護하기 爲해서 만들어 졌는데 처음에는 언론기 관등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나 사자들의 생태를 고려하여 이런 광대한 지역을 결정하게 된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공원이 선포된후 세계각국에서 물려오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게 되어 이제는 國立公園이야말로 「탄자니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잘 利用된 國土라고 말하고 있다는 애기가 있다.

「러시아」도 26개의 國立公園이 있다. 觀光客은 美國의 경우가 國立公園에 오는 사람만 1년에 2億이고 案内者가 1萬5,000名이며 國立公園 觀光을 가장 많이가는 나라는 日本인데 國立公園이 3억이고 國定公園 2억해서 5억名이 國立公園에 간다고 한다. 그중에도 「후지야마」라는 國立公園에는 1년에 7,290萬名이나 물려든다고 한다. 우리나라

라에는 全部 9個 國立公園에 年間 799萬 5,000名이 간다. 〈中略〉

과우간 環境을 害치는 모든 人間行動을 規制해야 되고 天然資源을 管理할때나 또는 開發計劃을 할때는 國內의 權威있는 學者들이 먼저 研究를 하여 이 開發計劃이 실행될 경우에 自然의 파괴여부를 結論 내린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點을 強調하고 있다. 아울러 끝으로 다음의 몇가지 事項을 提案하는 바이다.

첫째, 學術的으로 研究價値가 있는 섬 따위를 擇하여 적극적으로 保存할것.

둘째, 學生 自然美保存運動의 展開.

셋째, 살아있는 博物館運動.

넷째, 自然과 親하는 運動 등.

〈梨大 自然史博物館長〉

<資 料>

## 江原道の 景觀資源

孫 繼 天



仁者は 樂水요 智者는 樂山한다 했다.

仁者도 智者도 아니면서 山水를 論할수 있을까? 더구나 神秘스럽기만한 江原道の 山水, 그 景觀을 論함에 있어서라.

우리나라가 錦繡江山이라 함은 바로 秀麗한 江原道の 山水에서 따내는 말일 것이다.

千古의 歲月속에 맑고 푸르름을 간직해온 東海岸, 金剛山の 縮圖라고 할수 있는 雪岳山과 小金剛, 詩人墨客의 숨결이 서린 關東八景, 그리고 北漢江水原의 巨大한 人工湖水는 筆舌을 絶하는 名勝이오 壯觀이다.

江原道는 春川湖畔地區, 江陵鏡浦地區, 雪岳山地區, 寧越地區등 4大觀光圈域으로 나눌수 있다.

이들 觀光圈은 거의 環狀形으로 위치 하고있어 交通이 번거롭지 않다.

서울을 떠난 觀光客이 春川 於口에 이르면 都心이 보이기 전에 溪谷사이로 衣岩湖가 펼쳐진다. 衣岩湖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近年에 登山客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三岳山이 우뚝 솟아있다.

이곳엔 登仙瀑布가 有名하고 奇岩怪石과 溪谷사이를 타고 오르는 登山코스는 斷崖가 없고 아기자기한바 있어 初心者에게 무리하지 않고 노련한 山岳人들에게도 실증을 주지않는다.

春川은 완전히 水中都市다. 발끝에 淸平湖를 걸고 허리에 衣岩湖를 들렀으며 양쪽 어깨에 春川湖와 昭陽湖, 그리고 動亂때 中共軍을 통쾌하게 무찌른 破虜湖를 엮어놓고 있다.

여름觀光客에겐 낚시와 船遊의 樂園이요, 겨울觀光客에겐 國內 제일의 스키이트場으로 提供된다. 특히 29억톤의 물을 담고있는 東洋最大의 砂礫댐인 昭陽湖는 楊口・麟蹄에 이르는 수많은 溪谷과 山허리를 삼키고있어 江原道 제2의 바다라고 할수있는 巨大한 湖水다.

昭陽댐에서 支流로 10리쯤 떨어진 곳에 李朝 明

宗때 李資光이 隱居했던 淸平寺가 있다. 절은 動亂때 戰火로 燒失되고 廻轉門만이 남아 寶物 164號로 指定되어 있다.

더구나 새해부터 昭陽댐과 麟蹄를 연결시키는 定期旅客船이 運航하게 되면 春川에서 水路로 內雪岳에 가 닿을수 있다.

이곳엔 內雪岳의 秘景을 照望할 수 있는 寒溪嶺 鐵路가 놓여있다. 將帥台를 거쳐 頂上을 넘어서면 車體가 묻혀버릴듯 奇岩과 樹木이 들어차 있고 視野에 푸른 東海가 펼쳐진다. 여기에 가을이면 불붙는 丹楓과 겨울이면 雪景이 곁들여지는 것이니 어느 觀光客인들 失神하지 않을 수 있으랴.

內雪岳 중허리에는 五色藥水가 있고 襄陽을 지나 東草로 向하다보면 洛山寺에 이웃한 義湘台(亭子)가 바다의 泡沫이 부딪는 斷崖위에 자리잡고 있고 新羅 文武王 6年(1,200년전) 義湘大師가 創建한 由緒깊은 洛山寺가 松林사이에 자리잡고 있으며 洛山寺에서 南方 2km地點에 洛山海水浴場이 十里明沙와 알맞은 水深, 淡水를 자랑하고 있다.

外雪岳길은 襄陽과 東草사이에서 分岐된다.

雪岳山の 景觀은 한마디로 自然이다.

그 神妙함은 4季의 區別이 없다.

海拔 1,708m의 大靑峰(主峰)을 中心으로 北으로 馬等嶺, 西로 靑峰, 南으로 寒溪嶺, 東北으로 華彩峰이 솟아있고 東海에 面한 外雪岳, 內陸에 面한 內雪岳과 寒溪嶺 以南의 南雪岳으로 區分된다. 天然記念物 제171호로 指定된 雪岳山은 稀貴 動植物이 棲息하고 있어 學術的 價値로서도 貴重하며 바위가 회고 깨끗하면서도 犯할수 없는 靈域의 尊嚴性을 지닌 名山이다.

이곳에는 動物 約360種, 魚類 35種등 822種의 各種 動植物이 서식하고 있는것으로 調査되고 있다.

內雪岳에는 由緒깊은 寺刹인 百潭寺를 비롯하여 將帥台, 鳳頂庵, 五歲庵, 大乘폭포, 十二仙女湯등의 名所가 있으며 外雪岳에는 名利 新興寺를 비롯하여 權金城, 金剛窟, 繼祖庵, 內院庵, 蔚山바위,

千佛洞溪谷, 飛仙台, 臥仙台, 土旺城폭포, 陽瀑, 五連瀑, 鬼面岩 등 우수한 名所, 景觀 등이 內外觀光客을 손짓해 부르고 있다.

雪岳山을 뒤로하고 江陵을 향해 海岸線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溟州 連谷面 靑鶴洞에 名勝地 제1호로 指定된 小金剛이 있다. 마치 金剛山의 縮小版 같다고 하여 小金剛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곳엔 武陵溪, 十字沼, 金剛寺, 淸心瀑, 洙心瀑, 九龍瀑, 望軍台, 萬物像, 四門달이 등이 발길을 멎게 한다. 小金剛에서 指呼之間인 江陵은 文鄉이요 勝地로 알려져 있으며 嶺東 제1의 都市이다. 市內에는 國寶 제51號로 指定된 客舍門을 비롯하여 碩學 李栗谷 선생의 탄생지인 烏竹軒, 關東八景의 하나인 鏡浦臺와 鏡浦湖, 船橋莊, 海雲亭, 鄉賢祠, 七事堂, 神福寺社, 三層石塔, 幢竿支柱 등 名勝古蹟 등이 수두룩하다. 74년 가을에는 鏡浦臺入口에 申師任堂銅像이 세워져 久遠한 母像으로 그 일을 널리 宣揚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陰曆 5월5일을 前後해서 汎市民的으로 열리는 江陵端午祭는 그民俗的인 價値로 無形文化財 13號로 指定되어 保存되고 있다. 江陵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鏡浦海水浴場이다.

鏡浦臺와 鏡浦湖를 이웃한 鏡浦海水浴場은 물이 맑고 宿泊 및 遊樂施設 등 附帶施設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여름철에는 全國各地에서 모여드는 避暑客들로 초만원을 이룬다.

江陵에서 더 南쪽으로는 工都 三陟이 있다. 三陟에는 關東八景의 하나인 竹西樓가 있고 靈山의 頭陀山을 中心으로 武陵溪와 天恩寺, 三和寺, 靈隱寺 등의 이름난 절과 碑를 세운 후 潮水가 들어오지 않아 一名 退潮碑라는 이름이 붙은 陟州東海碑가 있다.

東海岸지방의 景勝은 무어니해도 關東八景과 겹푸른 바다다.

關東八景은 通川의 叢石亭, 高城의 三日浦, 杆城의 淸澗亭, 襄陽의 洛山寺, 江陵의 鏡浦臺, 三陟의 竹西樓, 蔚珍의 望洋亭, 平海의 月松亭 등을 든다. 이 중 叢石亭과 三日浦는 休戰線 以北에 있고 望洋亭과 月松亭은 慶北에 속해 있다.

江陵에서 大關嶺을 넘으면 오른쪽에 每年 冬季 體典이 열리는 有名한 大關嶺스키場이 있다. 嶺東·嶺西의 分水嶺이자 嶺東地方의 關門인 大關嶺은 예전에는 아흔아홉구비의 險路였지만 嶺東高速道

路의 施工으로 순탄한 길이 될 것이다.

大關嶺에는 앞서든 스키場外에 호프栽培農場, 韓·뉴示範牧場, 三養牧場, 高嶺地試驗場 등이 있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완만한 고갯길을 따라 거의 다 내려오면 平昌 五臺山入口에 이른다.

五臺山에는 新羅以來의 古刹인 月精寺를 비롯하여 上院寺 五臺山史庫址 등이 있다. 특히 月精寺入口의 하늘을 찌를듯한 전나무숲과 境內의 八角九層石塔(國寶48號)은 너무나 有名하며 境內의 上院寺에는 國寶38號로 指定된 銅鍾과 世祖가 내린 上院寺重創勸善文이 保存되어 先祖들의 高邁했던 넋을 간직하고 있다.

平昌에서 갈라져 들어가는 旌善 古汗에는 有名한 淨岩寺가 있다. 특히 淨岩寺 境內의 寂滅寶宮은 重厚한 麗代 建築物의 하나로 손꼽히며 約100m 거리에 있는 水瑪瑙塔은 獨特한 築造樣式으로 特徵이 있고 境內에 天然紀念物의 하나인 熱目魚가 棲息하고 있어 學術的으로도 重要한 價値를 지니고 있다.

平昌에서 國道를 따라 南쪽으로 내려오면 李朝의 어린 임금 端宗의 애절한 넋이 잠든 寧越이다.

寧越是 最近에는 上東重石, 雙龍시멘트 등 鑛工業地帶로 이름나 있지만 역시 端宗遺蹟이 到處에 散在해 있어 옷깃을 여미게 한다. 邑內에는 端宗의 幽宅인 莊陵을 비롯하여 端宗이 魯山君으로 降等되어 流配되었던 淸冷浦, 端宗이 자기의 不遇한 處地를 子規에 전주어 읊었다는 詩가 傳하는 子規樓, 觀風軒, 錦江亭 등이 있으며 매년 4월이면 端宗의 넋을 追慕하는 端宗祭가 舉道的으로 열린다.

또 寧越에서 近來 脚先을 받기 시작한 名所로는 高氏窟을 빼놓을 수 없다.

寧越邑에서 發電所쪽으로 約7km 거리에 있는 高氏窟은 約4억년에 걸쳐 이루어진 鍾乳石동굴로서 길이는 6km. 그안에는 4개의 湖沼, 3개의 瀑布, 10여개의 廣場을 비롯하여 돌장미, 동굴眞珠, 鍾乳石, 石筍 등이 一大莊觀을 이루고 있고 특히 희귀한 微生物이 많이 살고 있다.

寧越에서 西쪽으로 自動車 또는 汽車(太白·中央線)로 約2時間 거리에 嶺西南部 제1의 都市인 原州市가 있다.

原州는 近世에까지 江原監營이 있던 곳으로 市內

(4페이지에 계속)



<自然紹介>

# 八 公 山

楊 麟 錫

## 1. 位置 및 地勢

大邱東北方 約 19km地點에 자리잡고 있는 八公山은 主峯(1,192m)을 中心으로 山字形으로 連立해있는 東峯(1,036m) 西峯(1,041m) 三峯으로 이루어져 있고 西쪽으로 把溪山(995m) 架山(923m) 및 所也峯(945m)이 連立해 있고 東쪽에 冠峯(748m)이 隆起해 있는 稜線距離 約 90km에 達하는 一帶를 八公山 連峯이라고 부른다. 이 八公山塊는 佛國寺統(白堊紀末 或은 第三紀初)에 屬하는 花崗岩으로 構成되어 있고 大邱盆地의 北境主體山地를 이루고 있으며 東北에 背面을 돌리고 있고 前面에는 大邱盆地가 展開하여 있다. 主峯에서 冠峯에 이르기까지는 山嶺이 峻嶮하고 裸出한 花崗岩이 切峯을 이루고 있는 보기 드문 滿壯年期的 山貌를 보이고 있다. 主嶺에는 河川과 構造谷이 많고 河川浸蝕에 따르는 大小盆地도 많아서 自然景觀에 變化가 많고 林相도 좋고 103科 375屬 700餘種의 植物이 자라고 있으며 楸백나무自生地(天然記念物제 1호), 가지연꽃, 겨우사리, 끈끈이주걱, 돌단풍, 바위취, 붉은터리, 열녀수, 염주나무, 사시나무, 좁목형, 구와꼬리풀, 개불알꽃, 천마等 稀貴植物도 많아서 自然景觀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있다.



八公山 頂上(1,192m)

고 林相도 좋고 103科 375屬 700餘種의 植物이 자라고 있으며 楸백나무自生地(天然記念物제 1호), 가지연꽃, 겨우사리, 끈끈이주걱, 돌단풍, 바위취, 붉은터리, 열녀수, 염주나무, 사시나무, 좁목형, 구와꼬리풀, 개불알꽃, 천마等 稀貴植物도 많아서 自然景觀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있다.

## 2. 山名의 由來

輿地勝覽에 따르면 이 산을 父岳 또는 中岳이라고 하였고 國家에서 祭天壇을 이 산에 設置하였다 고 해서 公山이라고 하였다 한다. 東史에 따르면 心地王師(新羅憲德大王三子)가 俗離山 永深法師에

게 彌勒菩薩로부터 傳來한 簡子(彌勒菩薩遺訓)中 八, 九 2개 簡子를 얻어서 이 산에 寶藏하였더니 高麗睿宗이 簡子를 內殿에 두고 瞻敬하다가 中 1개를 紛失하고 王은 未安함을 禁하지 못하여 宋 으로부터 얻은 佛牙를 代送하였다. 따라서 이 산에는 八簡子 1개만 還奉하게되고 그로 因해 八字를 붙여서 八公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3. 名勝, 古跡 및 寺刹

主要한 것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架山山城: 內城 中城 外城의 三部로 되어 있는데 內城은 仁祖 庚辰年(서기 1640年)에 觀察使 李命雄이 王命을 받아 築造한것으로서 石築周圍 4,710步 女牆 1,887堞, 東西北 3門 8暗門이 있었고 城內에 9池 21井이 있었다고 한다. 中一井인 將軍水는 오늘날에도 登山客의 오아시스로 愛用되고 있다. 中城은 英祖 辛酉年(1741)에 觀察使 鄭

益阿가 王命을 받아 築造하였고 石築周圍 602步, 女牆402堞 城門樓 1處가 있었다한다. 外城은 肅宗 庚辰年(1700)에 觀察使 李世載가 王命을 받아 築造한 것으로 石築周圍 3,754步 女牆1,890堞 城門1門上에 樓가 있고 樓額은 嶺南第一關坊으로 되어 있었다 하니 國防上 要衝地 였음을 짐작 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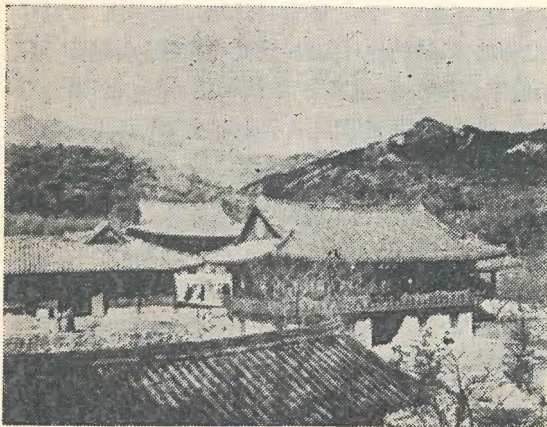
北東南 3暗門이 있었다하나 오늘날에는 石築과 門址만 남아 있어서 往年의 雄壯하였든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城內에는 三層岩 架岩의 巨岩이 있고 僧兵의 弓藝練習場이었던 寶國寺 天柱寺가 있었으나 6.25動

亂에 灰燼되었다. 城外南麓에 있는 鳴淵은 溪流가 清冽하고 大小5개 瀑布가 絶壁에 連結되어 있어서 夏節에는 浴客이 끊어지지 않는다.

(2) 松林寺: 架山南麓 東明面 九德洞 所在, 新羅古刹로서 往年에는 15棟의 殿閣이 있었다하나 至今은 3棟만 남아있다. 1959년에 國寶塔을 修理할때 塔속에서 舍利4개, 新羅手法으로 보이는 순금佛龕, 玉으로 만든 줄기에 金으로 만든 鬘을 붙인 보리수, 가마等 數많은 寶物이 나왔다. 指坪之間인 道德山 中턱에 亦是 新羅古刹인 道德寺가 있다.

(3) 桐華寺: 八公山南麓 達城郡 公山面 道鶴洞 所在, 新羅 炤智王15年(493)에 極達和尚(普照)이 開山하고 瑜伽寺라고 하였다. 瑜伽는 即相應이니 諸法에 相應하여 化度衆生함을 가리킨다. 340년이 지난 新羅 德興王7년에 心地王師가 再瓶할때에 冬寒雪裡에 天雨合歡하여 机桐花가 滿開하였음으로 因해 桐華寺라고 改稱하였다. 그후 累次의 重建을 加했고 壬亂兵火에 燒失되기도 했으나 오늘날에는 大雄殿을 비롯해서 18殿閣 3門1樓에 釋迦牟尼佛을 비롯한 數많은 佛像이 奉安되어 있고 佛舍利1,262개 佛牙1개를 비롯한 17點의 寶物 貴重品을 간직하고 있다. 附屬庵子로서 浮屠 養眞 內院 念佛庵이 있고 周邊에는 毘盧遮那佛 磨崖石佛等 寶物, 廣石臺 一人石 念佛岩 藥水湯 瀑布等 勝景地도 많아, 壬亂當時에는 四溟大師가 거느리는 僧兵의 嶺南司令部이기도 하였고 新羅佛敎의 開花地이기도 하였고 오늘날에는 曹溪宗 제9敎區本山으로서, 大邱의 守護寺로서, 嶺南의 名勝地로서의 貫錄을 誇示하고 있다.



桐華寺 大雄殿 附近



桐華寺 舍利塔

(4) 把溪寺: 大邱에서 13km地點 公山面 西村洞 所在 新羅 聖德王 13年(714)에 瓶建한 것으로서 溪流가 清澄하고 紅葉이 有名하다. 北쪽 山 넘어에는 第二石窟庵이 있다.

(5) 冠峯藥師如來: 冠峯頂上에 露坐하여 있는 地方文化財인 戴冠石佛로서 靈驗이 크다해서 祈福者는 絡繹不絶하고 香火는 晝夜로 계속되고 있다.

(6) 銀海寺: 八公山 東麓(永川郡 淸通面 治日里)에 자리잡고 있는 제10敎區本山, 新羅 憲德王 己丑(809)에 惠哲國師가 瓶建한 以來 數次의 火災再瓶을 거쳐 現在33棟의 殿閣을 가지고 桐華寺에 다음가는 偉容을 자랑하고 있다. 周圍에는 雲浮 百興 妙峯 中岩 瓶雲 百蓮寺의 庵子가 있고 溪谷은 怪岩奇石이 絶妙하다.

4. 結語 以上과 같이 八公山一帶에는 自然景觀이 아름다운 勝景地, 由緒깊은 古跡 및 名山大刹이 많아서 保護를 加하여야 할곳도 있고 國立또는 道立公園으로 開發할 價値가 있는 곳이다.

〈慶北大 敎授, 大學院長〉



## 韓國의 天然記念物

天然記念物은 그 나라, 그 鄉土의 自然界를 代表할 수 있는 固有한 動植物, 鑛物, 地質 및 原始林, 林叢, 洞窟, 自然風景等이 周圍 環境이 變化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人爲의인 影響을 받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祖上들이 栽植한 老樹, 畜養하던 動物들도 天然記念物의 對象으로 삼고 있다.

文化의 發展과 더불어 天然物의 利用度가 높아감에 따라서 原始林, 歷史와 傳說을 간직한 巨樹, 名木, 林叢까지도 伐採하여 絶勝佳境이 一朝에 世俗化하고 固有한 動物은 濫獲으로 因하여 滅種의 위기에 있으며, 稀貴한 鑛物과 化石을 包含한 地層을 破壞하는 현상 또한 날이 갈수록 尤甚해가고 있다.

元來 天然記念物은 歷史上으로 또는 學術研究資料로 價値가 있을뿐 아니라, 愛鄉心, 나아가서는 愛國心을 함양하는 터전이 되는데 더욱 값진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天然物은 일단 人爲의으로 破壞가 되면 다시는 복구시킬 수 없는 特質이 있으므로 미연에 그 破壞를 막아서 保存하는 길 밖에 없다. 따라서 文明國家에서는 天然記念物保存法을 公布하여 그 實効를 견우고 있다. 이 事業을 처음 着手한 것은 獨逸인데 1906년에 政府에 天然記念物保存局을 두고 初代 局長으로 保存事業에 관한 先覺者 Comventz博士를 任命하고 成果를 견우었던 것이다. 그들은 한그루의 나무, 한 種類의 動物, 鑛物을 保存하는 곳과 넓은 地域內의 動植物, 鑛物, 地質等을 保存하는 곳을 모두 天然保護區域이라고 總稱하나, 美國, 瑞西等에서는 넓은 保存區域은 特別히 國立公園이라고 부른다. Comventz博士가 國立公園이라는 名稱을 피하고 天然保護區域이라고 한 것은 一般의 公園, 즉 遊園地로 誤認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天然記念物은 世界的인 것과 地方的

인 것으로 區分할 수 있다.

世界的인 것으로는 忠淸北道 槐山郡의 미선나무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를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1屬 1種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稀貴한 植物이라는 點에서 天然記念物으로써 指定保護하고 있다. 이 밖에도 濟州道 漢拏山 中腹과 全羅南道 海南郡 大屯山의 왕벚나무 (*Prunus yedoensis* Matsumura) 自生地는 栽培植物의 原產地로써 價値가 있는 까닭에 指定한 것이다.

地方的인 것으로는 京畿道 楊州郡 龍門寺 境內의 은행나무와 濟州道 北濟州郡 토끼섬의 문주란 (*Crinum asiaticum* Linne)을 들 수가 있다.

動物로서 京畿道 楊州郡 光陵 숲속에 살고 있는 크낙새 (*Dryocopus javaensis richardsi*), 한강 유역에만 살고 있는 황소가리 (*Siniperla scherzeri* var. sp.) 智異山의 사향노루 (*Moschus moschiferus parvipes*) 등은 韓國 固有種으로서 指定한바 있으나, 近者에 이르러서 그 수가 매우 감소되었다. 특별한 保護策이 없이 이대로 간다면 장래 滅種될 우려가 있다.

洞窟로서는 濟州道의 熔岩洞窟과 江原道에 散在한 石灰岩洞窟中에서 이미 5點이 指定되었는데 觀光客들의 出入이 容易한 石灰岩洞窟에서는 內部에 發達한 石筍과 鍾乳石을 破壞하기가 일수이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天然記念物을 保存하는 事業에 先驅的인 役割을 한 나라는 獨逸이나,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그 뒤를 이어서 이 事業에 莫大한 國費를 投入하여 保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瑞西에서는 汎國民的인 保存協會가 조직되었고, 國民學校 學生까지도 會員으로 거의 加入되어 그 나라 自然保存에 協力하고 있다는 點은 우리도 하루 빨리 이를 본받아서 自然保存 事業에 實効를 거둘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本 協會理事 朴萬奎博士의 글中에서>

## 自然保存 啓蒙講演會 講演要旨

日時：1974. 11. 14.  
 場所：慶北(大邱)道 教育會館  
 主管：韓國自然保存協會 慶北支部

### 自然과 國民生活

李 殷 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바로 자연이다. 위로 日月星辰과 눈과 바람과 비와 이슬과 아래로 우리가 밟고 다니는 지구덩이 이 모든 것이 바로 代代로 물려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相續第1號라고 할 수가 있는 貴重한 財産이다. 우리 地球上에 가장 높은 山이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8800m) 또

가장 깊은 바다가 太平洋의 「팜」島 西쪽에 있는 「마리아나 캐인치」바다 골짜기(11,000m의 깊이) 이렇게 가장 높은 봉우리로부터 깊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全 地球上에 있는 신비한 自然과 그 속에서 사는 多岐한 생물들 이 모두가 다 우리가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이다. 줄잡아서 우리 韓國만을 가지고 말할지라도 22만km<sup>2</sup>



라고 하는 全 地球의 陸地面積의 600分之1되는 땅덩어리이다.

임진강을 등위에 두고 國境아닌 國境처럼 살고 있는 이 南韓, 全地域의 半도 채 안되는 이러한 좁은 地域에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政治問題나 다른 文化的인 問題는 별도로 두고라도 다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生活의 무대라고 하는 그 점에서만도 적을수록 줄을수록 그렇게 더 보배로울 수가 없는 땅덩어리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韓國의 植物數만도 4,191種 또 哺乳類가 105種 그리고 새種類는 292種, 昆蟲이 5,000種, 魚類가 모두 852種 이렇게 해서 植物과 動物과 昆蟲과 새와 魚類 등을 모두 아울러가지고서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2萬種을 넘는 生物들을 가지고 살고 있

다. 얼마나 貴重한 보배들인지 모른다. 古來로 이나라를 錦繡江山이라고들 하는데 錦繡江山이란 그 文句가 언제 누구의 손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는가는 確實치 않으나 퇴계先生 문집에 보면 바로 우리 가까운 이 도산의 경치를 말하면서 「무빈춘산금수명」, 「정금상화백반명」이라 했다. 오늘날 도산의 경치가 반드시 온갖 새가 백가지 소리로서 우짖고 안개건힌 봄산이 아주 금수처럼 환하다고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벌써 400年前에서 부터 錦繡江山이라고 노래를 했던 그런 아름다운 유산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다. 우리 民族은 古來로 부터 自然을 사랑했다. 항상 自然속에서 살고 自然을 즐겨워하고 또 自然으로 가고 오고 그래서 그 自然속에서 同和되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新羅의 花郎 歷史를 간단단 기록 한마디로만 말 할지라도 「유어산수화」야 「무언부지」라. 花郎의 무리들이 어디고 좋은 江山이 있다면 놀러 다니고 거기 가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서 道를 연마하고 거기에서 토론하고, 그렇게 했던 그들의 모습

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三國때로 부터 이렇게 自然을 사랑했던 우리들의 祖上의 면모를 생각할 수가 있다. 高麗 歌詞 靑山別曲같은 것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려사람도 역시 山을 좋아하고 自然을 사랑했다. 비단 서민층인 일반 대중층만이 아니고 學者들도 얼마나 山水를 사랑했는가. 放浪詩人이나 읊려는 물론이고 儒學者나 또는 일반 서민대중에 이르기까지 우리 全民族이 모두가 自然을 사랑하고 自然을 즐겨했다. 그러한 民族의 傳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자부 할 수가 있다. 사랑한 것만이 아니다. 淸溪 같은 책을보면 저 江陵에 있는 한 송정, 지금은 모래판 밖에 없으나 한송정이란 그 정자는 신라 화랑들 가운데에서도 네 國仙들이 놀던 곳이다. 그

런데 그들을 따라다니던 郎徒들 3,000名이 각기 나무 한 그루씩을 심어가지고 울창하게 되었다. 지금은 그 솔밭이 모래판이 되고 아무 것도 없어졌지마는 그 한송정 기록으로 보더라도 신라 화랑들이 산을 즐겨해서 노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손수 하나씩의 나무를 심는 일까지 했던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또 고려에 있어서도 예종 2년(1107년)에 火田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기록을 高麗史에서 읽을 수가 있다. 李朝 예종 원년(1469년)에는 法律條文으로서 山林을 保存해야 된다고 하는 條規를 만들었던 일도 있다. 그후 임진亂이 일어나면서 부터 山川이 황폐해진 것도 사실이나, 그것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역대로 내려오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을 볼 수가 있다. 특히 영조 12년(1726년) 기록을 보면 山 허리 이상은 물론이고 그 이하에 있어서도 솔밭을 건드린다면 장백대에 처했다고 했다. 그만큼 山林을 保護하려고 하는 政策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영조를 뒤이은 정조대왕은 初년에 全國적으로 山林 282個處를 설정해서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 말하자면 山林保護 自然保護區域을 定하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고종 6년(1869년)의 「대전회통」에도 역시 새로운 條規를 설정해서 많은 조문으로서 이 自然을 保護하려고 하는 政策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만큼 우리 民族의 祖上들은 自然을 사랑하고 自然을 즐겼을 뿐만이 아니라 自然을 保護하고 自然을 育成했다고 하는 事實을 그런 기록으로도 헤아릴 수가 있다. <中略>

自然保存 運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意味에서는 人間이 자기 生命을 保存하는 運動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서두에 말한바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가장 貴重한 遺産을 保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귀중한 運動이 아닐 수가 없다. 이 運動을 西洋과 東洋으로 比較해보면 우리 東洋에서는 아직도 機械文明이 덜 發達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自然의 眞面目이 傷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구라과 地域의 産業化에 한걸음 더 前進한 先進國들은 훨씬 더 自然의 面目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自然保存 運動이 自動적으로 구라과 社會에서 먼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이제와서는 世界的으로 機械文明과 근대화가 發展해 가면서 그 불결에 따라서 역시 自然保存 運動도 체계화 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구라과에서도 自然保存 運動이 체계적이고 理論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880년 「루돌프」의 저서가 나오면서 부터이다.

이 著書에는 自然을 保存해야 할 理由를 學問的 理論적으로 전개했다. 그때문에 保存協會같은 것이 각처에서 생겨나오고 各國에서는 法律로서 정하여 自然을 保存하는 運動에 박차를 가하게 됐던 것이다. 오히려 그보다

도 미국같은 데에서는 한 10년 빠르게 1870년에서부터 시작을해서 1872년에는 제18대 「그랑크」 대통령이 공원법에 서명을 했고 世界에서 가장 최대 최초의 공원이라고 할수있는 「엘로스톤」공원이 바로 그때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쳐봐도 모두가 1세기밖에 되지않는 정도이다. 이 1세기동안에 이와같은 조류는 世界的으로 퍼져 나가서 이제와서는 오히려 自然保存 運動에 더 열심한 나라가 文明한 국가고 自然保存 運動에 뒤떨어진 국가는 미개한 나라인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게까지 된것이다. 우리나라로 말할것 같으면 본시 이 온돌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것이다. 이 온돌 문제라고 하는것도 인조이후 약 300여년미만에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온돌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조 중엽이후에 일반화 되기 시작을 해서 그 온돌이 우리 자연을 침식하는데 큰작용을 했던것을 부정할수 없겠다. 거기에 일체의 피해 6·25전란 등으로 우리 산천은 가속도적으로 황폐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약을 풀어서 고기를 잡고 총을 쏘아서 새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와같은 일을 능히 예사롭게 생각하고 요 며칠전에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같이 제주도에서 국제수렵대회를 열겠다고도 했다. 수렵대회를 열어가지고서 평생 몇마리쯤 잡는다고 하는 것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오죽이나 좋으랴마는 일본사람들 모두와가지고서 총대를 들고 잡을놈 못잡을놈 마구잡이로 잡아댄다면 그 손해가 얼마나 큰가? 오히려 국제수렵대회를 왜 하는가 물오보면 거기에서 대답하는 말이 그래서 그 관점으로 들어오는 달러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느냐는거다. 달러 몇푼 떨어지는것 수렵대회에 참여하는 몇사람 달러 얻어 들이는것 보다는 썩이 우글부글해서 온 집집의 지붕마다 진금진수가 다 앉았다고 할때 그것 구경하러 오는 수만명 수십만명의 世界 各國사람이 들어오는 달러가 훨씬 많지 않겠는가? 오히려 거꾸로된 現實이다. 이제 우리는 호랑이도 없어지고 물고기도 없어지고 새도 없어지고 나무도 베여지는 이와같은 일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뒤늦게나마 自然保存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一部學者들이 中心이 되어 가지고서 自然保存단체를 구성한것이 1963년이다. 그후 1966년에는 국제연맹에 加入을했고 지금 10여년간을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法律로서도 문공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농수산부에는 산림법이 있고 조수보호법도 있으며 심지어 진도전보호육성법도 있다. 또 건설부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도 있고 공원법도 있으며 교통부에는 관광사업진흥법도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여러법이 자연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目的이겠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서로 모순을 범해가지고 오히려 自然을 손상시키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도 또한 부인하지 못할 事實이다. 어쨌든 이와같은 법들이 좀더 일원화 되어 자연보호령이

라고 하는 것을 中心 목표로 하고 그법이 다시 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나마라도 1965년 이후 지금 약 10년이 못되는 그동안에 자연보호구역도 설정이 되고 사적도 설정이 되고 혹은 공원도 설정이 되고 이렇게해서 지난 9월에 한번 統計를 내 보니까 우리 南韓 區域에 있어서 4億 8,000萬坪이 政府의 法律로서 保護를 받고 있는 自然區域이다. 여기에 지난 9월에 새로이 책정된 德裕山國立公園과 五臺山과 청학洞一圓을 넣어 國立公園은 지금 11個가 되었고 그 坪數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어 아마 중복을 피하고 名勝과 自然保護區域과 國立公園區域과를 합한다면 南韓에서 5億坪가량을 해야될수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南韓面積의 약 1.8%程度가 되지않나 한다. 그러나 이 1.8%라고 하는 것은 全世界 어느 國家에서 봐도 아주 말 할수 없는 미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日本의 경우만 하더라도 史蹟이나 或은 그러한 文化的 區域은 除外해 놓고 單純히 國立公園만 해야해도 80%가 넘는 그런 面積을 점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보다 넓은 地域이 法律로서 保護하는 保存區域으로 설정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 더구나 요즘에 와서 「그린벨트」로 설정했던 그것마저 할애하겠다 食糧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野山지에도 개간을 해라하는 이와같은 問題가 하나 떨어졌다. 물론 食糧을 증산하는 것이 우리 현실 生活에 대단히 重要的 問題가 된다. 그러나 그 食糧증산을 위한 野山개간문제와 自然保存問題가 어떻게 상충되지 아니하는 方法으로 어떻게 科學化시켜야 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이제는 完全히 山野를 ულ창하게 만들고 공기오염을 막고 혹은 또 바다의 모든 물도 淸결하게 만들어서 이 自然을 保存해서 人工이 加해지기 이전의 自然 그대로를 잘 살려서 科學의 研究대상물로 삼으려니와 그 結果로서 우리 人間의 生活에 커다란 배경이 되고 커다란 유용물이 될 수 있게 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열흘동안에 우리 農水産部에서는 연인원 39만5,000명이 열흘동안에 30萬個所를 조사 해서 有實樹 심은것을 계산해보니 3億1,100만 그루에서 약 86%되는 2億6,300만 그루가 살았다고 했다. 그만큼 요즘 몇해동안에 우리 山林을 育실주 만이 아니라 일반 山野에도 健康區域을 만들어서 조금씩 ულ창해 가는 것을 보고 「좋다」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자연보존협회라든지 또 여기 우리 學者들은 단순히 學問만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만족 할것이 아니고 행동면에 나서서 오히려 政策을 제시하는데 까지 나가야 되겠고 우리 政府에서도 이것을 깊이 유의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自然保存運動의 양식을 전환하여 간헐적이 아닌 항구적이고 원칙적인 運動이 展開되어야 하겠다는것과 部分的이고 地方的인 運動에서 國家的인 運動으로 展開해야겠다는점. 또 政策的인 運動만이 아니라 國民 全部가 나서서 主人公인 運動을 展開하는데에서 必要한 目的을 達成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學生들이 이것을 집집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自然保存 전도사 노릇을 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江山 錦繡江山 그대로를 우리함께 가꾸고 지켜 原狀대로 後孫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民族文化協會 會長〉

## 自然保存과 國立公園

金 憲 奎

世界學者들은 1970年代를 環境年代라고 한다. 70年代에 우리가 이 環境을 잘 造成하고 保護하고 環境教育을 잘 하지 않으면 人類가 滅亡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 70年代가 오기 前에 環境의 危機를 가장 먼저 認識한 政治家 故「케네디」大統領은 1960年代에 大統領으로 在職할 當時「고요한 危機」라는 책을 쓴 「유달」이라는 學者를 登用하여 內務長官에 任命하고 國立公園이라든가 其他 自然保護, 環境保存에 關한 行政을 맡겼다. 「고요한 危機」라는 것은 公害라는 것이 결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意味한다. 예컨대 바닷가쪽에 工場이 있어서 폐수가 물로 들어 가면 조개나 물고기 속으로 그 독이 들어가게 되지만 사람이 이 물고기 하나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곧 죽는 것은 아니다. 1년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것을 계속해서 10年 20年을 먹을 때 사람의 몸속에는 이독이 축적되어 치사량에 도달하게 되고 이렇게되면 사람이 죽을수도 있고 미칠수도 있게 된다. 요 며칠전 東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가와사기」라는 工場地帶가 있는데 그 工場의 公害로 말미암아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公害를 많이입었다고 해서 日本 돈으로 33억円을 損害賠償으로 물어주었다고 新聞에 보도된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몇10년 지나야 그 結果가 나타나지 公害가 있다고 해서 당장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니가 公害는 高요하게 온다는 것이다.

그後에 「존슨」大統領은 1965년에 「케네디」大統領의 環境改善정책을 이어받아 가지고 自然美保護運動이라는 運動을 일으켰지만 월남전이 치열해져서 이러한 政策이 유야무야로 끝나고만 일이 있다. 그러나 1970년에는 美國議會 91次議會가 개최되었는데 그때에는 한번 議會에 環境에 關한 法律案이 35案件이나 나왔다고 한다.

「존슨」大統領은 그後에 環境政策法이라는 것을 議會

에서 통과시키면서 美國은 이제 現代와 未來國民들의 社會的 경제적 기타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條件을 창조 내지 유지 하려는 것임을 宣言하고 70年代의 10年間이야말로 人間과 自然사이의 生産的인 조화를 되찾은 時期로 후세에 알려지게 될 것을 믿어서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70年代가 環境年代라고 하는 것은 구라파의 경우를 보더라도, 國際會合을 갖고 各國정부가 全 行政力을 動員해서 自然보호에 힘써야 되겠다는 것은 強調했다. 그리고 1972年 6月 5日에는 유엔 人間環境會議가 「스웨덴」의 首都 「스톡홀름」에서 열려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14個國에서 1,400여명이 모여가지고 人間環境宣言이라는 것을 했다.

즉 人間은 누구나 살기좋은 環境에서 살 權利를 가지고 있다. 各國 政府는 조만간에 環境行政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지금에 와서는 모든 UN산하 단체는 말할것도 없고 FAO나 유네스코, WHO, WWF, 유엔 工業開發機構, 世界銀行 같은 기관에서도 어떤 나라든지 環境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開發計劃에 대해서는 원조도 하지않고 빛도 주지않는다는 方針을 세우고 있다. 이와같이 「스톡홀름」會議에서 人間環境宣言을 한 以來로 人間環境을 잘 보호하는 것이 人類的 지상목표가 되었다. 自然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생태계를 유지 해야 된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그래서 結局 지금 여러나라에서 6月5日을 環境의 날로 定하고 또 6月 5日부터 11日까지 그 한주일을 環境週間이라해서 지키고 있는 政府도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장려하고 있다. 72年 9月 10日부터 15日까지는 國際自然保存연맹 연차총회가 「캐나다」에 있는 「턱키」산 부근의 6개 國立公園中에 하나인 「밤프」國立公園에서 56個國으로부터 385名의 代表들이 參席한 가운데 열렸다. 여기에서 討議된 것을 보면 대개 격변하는 社會에서 環境保存을 해야 되겠다. 環境政策을 세워야 되겠다. 生態學的 理論에 따라서 開發計劃을 세워야 되겠다. 自然의 利用과 保護에 힘써야 되겠다. 또 열대의 밀림이나 야생지 北極地方등 農事를 짓지 않는 地域의 保護문제도 우리가 研究해야 되겠고 滅種危機에 있는 動物들을 保護해야 되겠다. 바다속에 있는 生物을 보호해야 되겠다등의 내용이였다. 1972年 9月 18日부터 21日에는 世界에서 제일 먼저 國立公園으로 決定된 「엘로스톤」 國立公園(면적 88만8000평)의 100年祭를 지냈는데 거기에는 76個國에서 7621名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가지고 國立公園이 始作된지 100年이 되었는데 앞으로 100年間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것을 논의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그란티톤」이라는 國立公園으로 내려가서 제2차 세계국립공원대회를 했다. 거기에서는 32個國에서 온 사람이 論文을 發表했다. 그리고 세계 국립공원 List가 발표되고 20個國과

안도 채택되었다. 國立公園 리스트에 보면 101개국의 1,400個 國立公園이 登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國立公園은 11個소 중 지리산 하나만이 登錄되어 있다.

20개 권고 안이란 첫째로 관광공해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다. 觀光公害란 觀光간 사람들이 自然을 破壞한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海中生物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 野生動物輸出을 規制해야 된다는 것.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람쥐가 1년에 15萬마리씩이나 外國으로 수출된다고 하니 크게 문제가 아닐수 없다. 더구나 15만마리나 수출하면서도 이것을 직접 수출해서 「달러」를 많이 획득하지 못하고 日本사람을 거쳐서 아주 싼값에 수출한다고 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세계유산기념이라는 것을 設置하자는 案이다. 이 지구상에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가령 우리 나라의 지리산이 아름답다고 할 경우 이것은 한국사람만의 것이 아니고 全世界 人類가 공유하는 것이므로 全世界 人類는 이것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援助도 하고 기술도 제휴해야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環境教育을 철저히해 앞으로는 환경보호에 어린사람들이 이바지해야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환경보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美國에는 1872년에 첫째 公園이 되었지만은 실제로 公園行政을 맡아하는 國立公園行政處라는 것이 생긴것은 1916年이다. 58年後에야 그것이 생긴셈이다. 그 初代 處長인 「메트」란 사람은 自然은 最善의 教室이고 最良의 교과서라는 말을 남겼다. 실로 우리는 自然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수가 있다.

美國에는 지금 37개의 國立公園이 있는데, 이 國立公園行政處에서 현재 하고 있는 세가지 큰 環境教育方針을 보면 첫째는 國立環境研究地域을 設立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環境教育개발계획이라해서 環境教育을 위해서 개발할 必要가 있는데를 찾아가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는 學生環境活動參加運動이라는 것인데 學生들을 環境활동에 참가시킨다는 것이다. 대학학생들이 國立公園에 가서 環境活動에 참가하는 경우 그 費用은 「유네스코」에서 全部 부담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學生 「유네스코클럽」會員들도 「유네스코」에서 오는 돈을 좀 이 環境教育이나 또는 環境活動에 利用하면 좋지않을까 생각한다. 環境教育의 要點은 한마디로 말해서 人間은 環境의 正복자가 아니고 環境의 一部라는 것을 學生들에게 깨우쳐주면 環境教育은 완성했다고 볼수 있겠다. 우리나라에도 學生들이 수학여행, 卒業여행을 하는데 이것은 環境教育을 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듯 하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최근에 우리 自然保存協會 李德鳳회장을 中心으로 수학여행지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수학여행을 어떻게하면 環境教育의 기회로 삼아서 效果를 거둘수 있나하는 方案을 研究中에 있다. 이런견지에서 나個人的 의견으로서는 우리

나라 國立公園안에 自然研究路나 環境研究路라는 것을 만들어 어떤「코스」를 걸어가면 거기에는 植物의 이름도 써붙이고 학명도 써붙이고 動物이 거기에 서식한다면 動物의 生態도 써 붙이고 「팜프렛」도 만들고 해서 수학여행에 가서 어떤 「코스」를 걸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돌아올수 있게 하는것 또 「스라이드」와 영화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수학여행오는 사람한테 꼭꼭 틀림없이 보여주고 또 밤이 되면 인솔자가 그 地域環境에 대해서 説明을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修學旅行하기前에 가는 目的地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調査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갔다온後에 기행문이나 수필같은 것을 써서 제출하도록해야 될것이라 생각한다.

美國에는 環境解説部라는 것이 있다. 日本에서는 금년 6月 5일에 自然保護憲章을 宣布했는데 이것은 1966年이래 8年동안을 研究해가지고 금년에 發表한 것이다. 처음에 環境保護憲章制定 國民會議까지 구성해가지고 141個 團體가 참가해서 憲章을 기초하고 研究하고 다시 檢討하고 해서 結局 금년에 宣言式을 가지게된 것이다. 그 전문에는 自然을 존중하고 自然과 親하고 自然의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자. 自然의 구성을 이해하고 파괴하지말자 祖上에게서 물려받은 自然을 잘 保存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뜻의 전문이 있고 그 內容은 自然保護는 우리의 責務이다. 自然을 적절한 管理下에서 보호하자. 開發은 自然保存이나 環境保存에 우선할수가 없다. 環境教育은 어린 아이부터 하자. 環境을 파괴한 사람은 그것을 복구할 책임을 져야 된다. 國土를 녹화해서 環境을 개선해야 된다. 폐기물이나 약물같은 것을 사용하므로써 自然을 破壞하는 것은 용인 될수가없다. 自然物의 채취나 소음을 삼가해야 된다고 되어있다. 실제로 日本에서는 「미야지마」라는 섬의 큰 소나무가 말라 죽은 원인이 건너편에 있는 공장배수이라 하여 공장이 다른곳으로 옮겨지는 실정이며, 이미 環境廳이 창설되어서 東京에서 地下鐵 확장공사가 있었을때 이 環境廳長官이 地下鐵工事 도중에 가로수등 나무 한그루라도 마르게 하게 되면 용서치 않겠다는 강경한 성명서를 냈다고 한다. 그만큼 自然保存에 엄정한 法律이 마련되어 있고 또 長官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하고있다. 現代科學技術은 現代人을 달나라 여행까지 가게 만들었고 편리한 生活必需品를 많이 만들어 내서 倖幸福하게 生活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한편 人類를 存亡의 危機에 몰아 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人間이 環境을 자꾸 파괴 하기 때문에 날마다 심해지는 空氣汚染이라든지 물의 汚濁이라든지 都市의 各種公害 같은 것은 現代人의 保健을 위협하고 있으며 山林의 남벌은 농민들을 洪水와 한발에 떨게하고 있다. 이제 都市人은 週末마다 大自然속으로 돌아가서 신선한 空氣를 호흡하지 않으면 健康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

다. 또 한가지는 自然의 아름다움이 人間의 想像力을 자극하는 가장 강렬한 자극제가 된다는것이다. 「존 골드워티」가 대대로 이어온 아름다운 「비전」의 冥想이 人間을 現在의 狀態로 向上시켰다고 말하는것도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自然을 그대로 영원히 保存하기 위해서 設立하는 이 國立公園은 人類들의 마음속에 가물거리는 그 「비전」을 파악 할수있는 樂園이요 원천이라고 할수 있겠다. 따라서 國立公園은 사람들이 日常生活을 떠나서 自然과 親할 機會를 가지며 거기서 「인스프레이션」 즉 영감을 느끼고 人生을 哲學할 수 있는 現代人의 樂園으로 꾸며져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1968年度 인도 「뉴델리」에서 IUCN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國立公園의 定義를 이렇게 내렸다.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國立公園은 적어도 1,000町步이상 1000ha이상의 面積을 가진 아름다운 地域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島嶼地方은 예외)그리고 그 國立公園이 갖추어야 할 여건은 그안에 있는 生態界가 人爲의으로 損傷되지 않아야 되고, 둘째는 國家를 代表할 만한 우수한 風景지라야 되고 動植物 및 그 棲息地가 科學이나 教育 및 觀光의 目的에 적합한 곳이라야 되고 또 이 國立公園은 國內權威者들에 의해서 破損이 防止되고 유지되고 또 유지를 위한 指導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自然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여건하에서 영감을 위해서나 教育을 위해서나 文化活動을 위해서 또 觀光의 目的을 위해서 들어갈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國立公園과 自然保存地區와 다른점은 國立公園은 觀光目的이 절반 自然保存이 절반이나 自然保存地區는 觀光의 目的은 해당이 않된다. 「캐나다」의 「팜푸」 국립공원은 훌륭한 「스키」장이 될수 있으므로 지난해 「올림픽」委員會에서는 「캐나다」의 「팜푸」 國立公園에서 올림픽大會를 하기로 決定을 보았는데 自然破壞를 우려한 現地 國民들의 反對運動에 부딪쳐 거기에서 「올림픽」大會를 하지 못하고 日本에서 한 것이다. 그만큼 「캐나다」 사람들은 自然保存에 熱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탄자니아」라는 나라에 있는 「세렌키티」 國立公園은  
(6페이지에 계속)

題字는 成均館大學校 教授 閔泰植 博士의 揮毫입니다.

발행인 李 德 鳳  
편집인 金 昌 煥  
발행처 社團 韓國自然保存協會  
法人

서울特別市東大門區清涼2洞山1  
林業試驗場內 電話 2894